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29.(월) 14:30
(지 면) 2025. 12. 30.(화) 조간

국민안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여는 ‘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’ 개최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2월 29일(월),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‘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’를 개최*했다.

* (일시) 12.29.(월) 11:00~ / (장소)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/
(참석) 재난안전 유공자, 가족 등 200여 명

○ 이번 행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일반국민과 공직자, 그리고 그 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고, 한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‘안전동행’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.

○ 특히, 12·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 분야 공직자와 일반국민이 한마음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경건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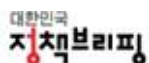
□ 먼저, 올해 발생한 재난·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며,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○ 광주광역시 동구의 최승일 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에서 움직일 수 없는 7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,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. 당시 물살이 거세고 다른 구조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지만,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.

○ 충청남도 아산시의 홍성표 씨는 하천의 강한 물살에 고립된 시민을 발견하고,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현수막을 이용해 임시 밭줄을 만들어 구조했으며,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로 회복을 도왔다.

-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고등학교의 김동한, 박제규 교사는 집중호우 당시 학교 주변 안전점검 중 급류에 떠내려온 의식이 불분명한 6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, 급류 속에서 어르신을 신속히 구조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.
- 광주광역시청 임지영 사무관은 지난 7월 광주·전남 지역 ‘호우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’를 운영하며 신속한 수습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. 또한,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, 공공·민간기관과 협업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했다.
- 경기북부경찰청 김관철 경감은 가평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립된 계곡의 마을주민과 야영객 57명을 구조하고, 요양병원과 마을에 거주하던 고령자와 부상자 43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.
- 이날 행사에서는 모든 행사 참가자와 함께 ‘재난안전업무 최우선원칙’이 포함된 ‘안전관리헌장’을 다짐하며, “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난·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”이라는 의미를 되새겼다.
- 또한, 세종시 어린이 사계절하모니합창단과 경찰교향악단의 공연과 함께 유공자의 가족이 전하는 깜짝 응원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선 재난안전 유공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라며,
- “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, 그 용기와 노고에 적극 포상하고 격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	책임자	과 장	이영인 (044-205-4270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승 (044-205-4272)
			주무관	한지성 (044-205-4274)



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

‘안전의 빛’
행복의
미래를 열다

2025.12.29.(월) 11시

정부세종컨벤션센터



행정안전부